



“무엇을 품고 있니?”

가던 길 잠시 멈추니, 보일 것 같습니다.
별써부터 봄날을 준비하는 땅 아래의 기운이.

눈송이는 흙을 품고 여린 잎은 겨울바람을 품으며
계절마다 만들어온 무늬들을 엮어갑니다.
새 옷 갈아입을 대지와 공기를 위해
내 마음 한편에도 마중 방 하나 마련해야겠습니다.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전통과 예술, 디자인이 교감하는
문화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다

유물에 담긴 시간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입니다. 청주대학교 앞 용암사에 있던 것으로, 좌대부터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를 더합니다. 팔각연화대좌에 향로와 보살상, 연화문 등이 조각되어 충청북도 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불상으로 손꼽힙니다.



시간 저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기, 신라의 미소가 있습니다.
초승달 눈썹, 오흘한 코, 굳게 다문 입,
더 잘 들으려는 듯 어깨까지 내려온 두 귀,
저를 정성으로 다듬고 매만져주었던
석공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하늘과 땅은 변한 것이 없는데,
시간은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계절,
잠시만 얼굴을 마주하고 당신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4 Winter Vol. 67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제호인 <WOW 청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W 청대 2014년 겨울호(통권 67-4호)
발행일 2015년 2월 16일
발행인 황신모 | 편집인 어일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가격 3,500원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신임 총장 취임사

Special Theme

- 06 Special Opinion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청주시,
새로운 천 년의 문화도시를 꿈꾸다
- 08 Special Interview
지적 상상력으로 역사문화도시의
잠재력을 깨우다
: 문화콘텐츠학과 김성일 교수
- 10 Academic Union
문화와 예술, 디자인의 힘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청주대학교

Glocal Report

- 14 Global Today
청대인의 목소리를 영어로 전합니다!
38년 역사와 전통의 청대 타임즈
- 16 Global Challenge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나를 채우다

WOW People

- 20 청인보(淸人譜) 제1장
청주시 부시장
윤재길 동문(법학과 77)
- 24 청인보(淸人譜) 제2장
KBS 글로벌센터장
김영국 동문(법학과 80)
- 26 청인보(淸人譜) 제3장
미녀와김치(주) 대표
윤지영 동문(관광경영학과 06)
- 28 청인보(淸人譜) 제4장
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장,
광고홍보학과 정상수 교수

30 Photo Essay
이 순간의 고요와 적막을 채우는
대지의 속삭임을 경청하라

WOW Messenger

- 32 Bravo Your Life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동문 4인방
- 34 Beautiful Reunion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믿음,
건축공학과 한천구 교수·
충북건축사협회장 한재희 동문

Issue & News

- 38 Focus On
방사선·치위생 졸업예정자,
전원 국가시험 합격 외
- 42 News Brief
청주대, 신임 황신모 총장 취임 외

46 People News
교수소식 | 김경식 교수,
제14회 충북도민대상 문화체육부문 수상 외
동문소식 | 김혜경 동문,
2014 충북무용대상 예술상 수상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신임 총장 취임사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2015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동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저의 대학운용방향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희망찬 乙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대학발전에 동참하시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함이 많고 불민한 제가 청주대학교 총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우리대학에 직면한 커다란 위기를 우리대학의 전 구성원들과 함께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여 '충청권 사립대학 1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장의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建學精神'을 구현한다

저는 먼저 일제 강점기에 교육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우리대학 설립자의 건학정신인 '教育救國'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학의 뿌리는 건학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대의 지식산업시대에 재정립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론연구, 방법연구, 실천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시대보다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반영하여 우리대학에 가칭 '인성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구성원, 회사원, 시민사회단체, 시민, CEO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인성교육의 요람, 인성을 실천하는 사회봉사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민주적 총장'이 된다

우리 청주대학교를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학구성원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학발전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대학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는 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충북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 그리고 우리대학 구성원이 진정으로 자긍심을 갖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대학 주체, 즉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의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학을 앞에서 이끄는 총장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하고 토론하여, 여기에서 도출되는 최대공약수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충청권 사립 1위 대학'으로 만든다

우리대학을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충청권 사립 1위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권 상위 4개 대학, 그리고 대경권, 부경권, 호남권의 1위 대학지표를 우리대학과 비교 분석하고, 제1단계 목표, 제2단계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대학이 우위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과의 지표를 정밀 분석하여 전략학과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는 등 거점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학주체들이 하나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대학의 모든 시스템, 규정, 정책, 행정, 운용방식, 경영방식, 교수관계, 노사관계, 학생관계 등이 앞서가는 대학수준으로 바뀌어야 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권 사립 1위 대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던 모든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대학 구성원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면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최대 현안은 '대학구조개혁평가'입니다. 이에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는 정원감축을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생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TFT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고, TFT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학정책에 대한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수, 직원, 학생, 대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학의 주요 현안과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대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선순환 과정으로 대학운영을 전환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대학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 구성원이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동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대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되었던 적폐는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반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속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급진적 개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점진적 개혁으로 우리대학을 '충청권 사립 1위 대학'에 걸맞는 개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대학에서 취업보도실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경상대학장, 부총장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마지막으로 불태워서 우리대학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에 교수님, 직원 선생님, 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황 신 모

Historic & Cultural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전통과 예술, 디자인이 교감하는 문화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다

도시가 가진 역사적 정통성과 높은 문화 수준은
시민의 살아있는 자긍심입니다.
통합 이후 도시의 미래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해온 청주시는
새로운 천 년의 문화도시를 꿈꾸며
도시 곳곳에 역사와 문화가 숨길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는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 모두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되는 일-
청주대학교가 문화도시 청주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SPECIAL THEME

06 · Special Opinion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청주시
새로운 천 년의 문화도시를 꿈꾸다

08 · Special Interview

지적 상상력으로
역사문화도시의 잠재력을 깨우다
- 문화콘텐츠학과 김성일 교수

10 · Academic Union

문화와 예술, 디자인의 힘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청주대학교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청주시, 새로운 천 년의 문화도시를 꿈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주시는 역사성과 문화적인 자산을 두루 갖춘 품격 높은 도시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역사적 정통성과 높은 문화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칭다오와 일본의 니가타와 함께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수도로서의 자긍심이 더해졌고, 이는 앞으로 청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1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 전시장 내부 2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개막을 알린 조각보 컷팅식 3 2014년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 연주회

천년 고도(古都) 청주, 역사문화도시로의 재탄생 청주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 후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하면서 무심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서원문화(西原文化)를 꽃피워 왔다. 고려시대 태조 23년(940년)에 '청주'라 처음 불리기 시작하여 천 년 넘게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긴 역사 속에서 공유하고 쌓아 올린 삶의 경험이 오늘날 청주 문화의 무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교육도시로 남다른 도시의 정체성을 지녀왔던 청주는 최근 '직지(直指)'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역사, 문화, 도시계획, 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왔다. 천년 고도 청주의 역사적, 문화적 재조명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과 삼국시대 이후의 유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통합청주시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청주만의 브랜드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주시는 다방면에 걸쳐 아이디어를 모으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직지심체요절, 초정행궁, 상당산성, 성안길 등 역사문화적인 자원과 대청호, 가로수길, 옥화구곡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환경 자원을 복원하고 정비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직지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쇄문화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하는 등 직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청주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청주시만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워온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1999년부터 열리고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청주를 공예의 도시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옛 연초제조창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문화적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가 되었다. 최근에는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가 하면,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청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4 2015년 비엔날레의 특별전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알랭 드 보통

역사문화 유산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문화 지역의 정체성은 생활양식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건축자산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역사문화 유산을 재현하며 잘 보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도심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역사성을 담은 건축물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혼재해 있는 청주의 원도심은 이런 점에서 청주를 가장 잘 말해주는 동시에 청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러한 청주 원도심이 역사와 문화, 추억이 흐르는 거리로 변신할 예정이다. 1965년에 건립되어 올해 50년을 맞는 시청사는 청주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청주시가 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시청사의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시청사의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왜군을 무찔렀던 역사적 현장인 청주읍성은 관아공원으로 확대 조성되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며, 사직동 옛 KBS 사옥은 청주시립미술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 옛 청주역사도 재현되어 중앙재래시장과 연계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현재 청주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역사문화 공간은 단연 옛 연초제조창일 것이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던, 청주를 대표하는 근대산업의 요람이던 이곳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2020년까지 옛 연초제조창과 주변마을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융복합단지 조성한다. 공예제조창, 담배박물관, 디지털미디어체험관, 융합교류지원센터, 융복합디자인마켓, 시민예술촌, 문화예술특화거리, 국악방송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예 외에도 드라마, 영상, 공연예술 등을 창작할 수 있는 문화융성센터도 함께 건립된다. 또한, 주변마을인 안덕별과 밤고개, 수암골에는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창작촌을 조성해 문화와 이야기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 얼마 전 청주시는 중국 칭다오(靑島), 일본 니가타(新潟)와 함께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공식 선포식을 가졌다. 이로써 청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인정받으며,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청주시는 국비 10억 원 등 총 1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5년 1년 동안 개·폐막식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의 교류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청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문화도시 사업은 청주의 문화원형과 문화브랜드를 콘텐츠로 개발하는 일이다. 직지, 초정행궁, 상당산성, 가로수길, 성안길, 대청호 등 청주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영상, 공연, 전시, 학습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문자, 건축, 디자인, 평생학습 등 한·중·일 3개국의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되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 청주읍성큰잔치,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등 청주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계한 3개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도 열린다. 중국 칭다오와 일본 니가타에서도 청주 전통공예전과 현대미술 특별전을 열 계획이며, 우리대학 한국문화연구소는 충북대 공자학원과 더불어 학술회의 공동 주관과 후원, 개·폐막식을 맡아 통역 등의 자원봉사와 주요 자료 번역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시와 공연, 학술, 시민커뮤니티 등 시민주도형 사업은 2015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 현지의 기관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어서 청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동아시아에 널리 알릴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 상상력으로 역사문화도시의 잠재력을 깨우다

문화콘텐츠학과
김성일 교수에게 듣는
청주시의 미래

우리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김성일 교수는 청주 지역이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단' 단장을 맡아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청주시의 고유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적 상상력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에게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청주시의 미래, 그리고 지역 문화콘텐츠 인재양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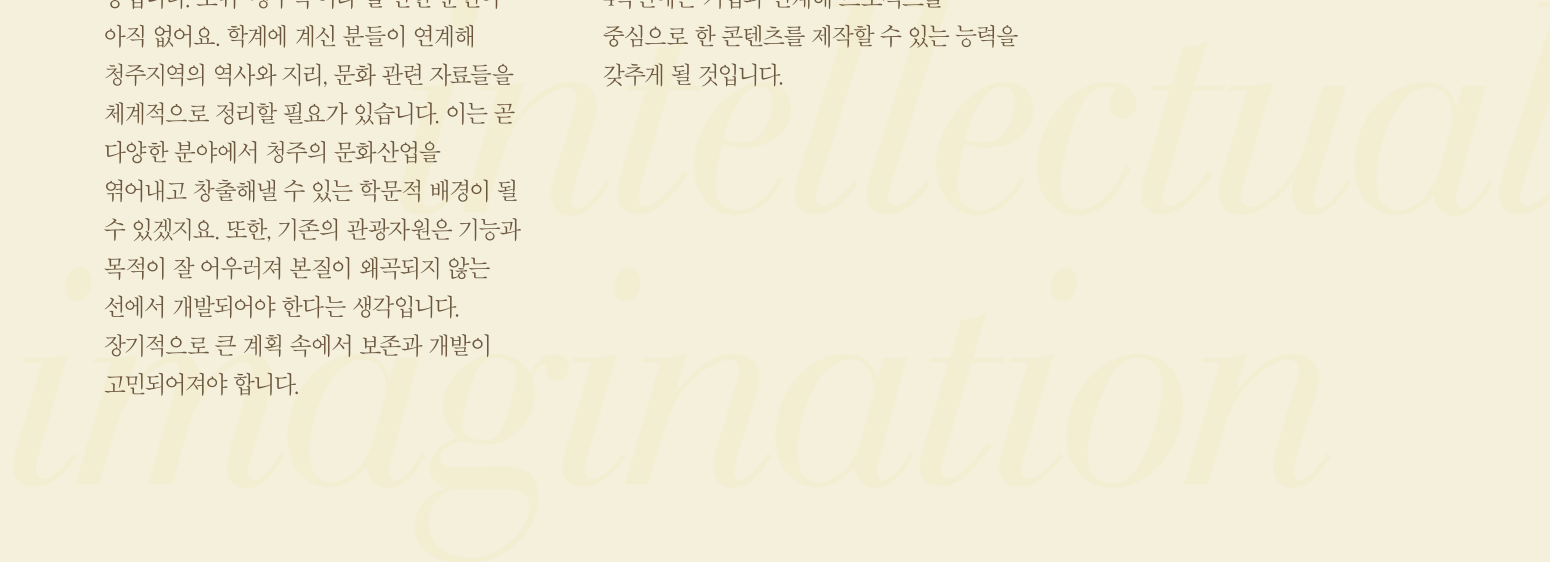
Q 청주시가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역사문화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려는 청주시에겐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문화도시 선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1980년대 자본주의의 패권이 바뀌면서 문화콘텐츠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영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가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 유럽에서는 문화수도 선정을 통해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능성과 매력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시작했지요. 동아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네트워크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교류를 벌이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우선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라는 상징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주시의 문화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획에 국제적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청주시가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지는 물론이고, 세종대왕 초정행궁, 상당산성과 드라마 촬영지, 청원생명쌀, 가로수길, 대청호, 청남대 등 역사적 또는 자연적으로 청주를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브랜드화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여전히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넘어 '스토리 액팅'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상품에 웃을 입히는 과정을 넘어 그 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어야 더 매력적이지요. 이런 면에서 청주시는 기존 문화유산들을 하나로 연결해 견고하게 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각화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이를 테면 전자책 분야를 특화시켜 직지라는 테마와 연결시켜 상품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Q 청주지역이 역사문화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청주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은 주로 도록, 족보, 관공서 행정자료, 구비문화 관련 자료 등입니다. 소위 '청주학'이라 할 만한 문헌이 아직 없어요. 학계에 계신 분들이 연계해 청주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다양한 분야에서 청주의 문화산업을 엮어내고 창출해낼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기존의 관광자원은 기능과 목적이 잘 어우러져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계획 속에서 보존과 개발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Q 지난 2011년, 충북지역 최초로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었고, 또 최근에 문을 연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 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과 발전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충북지역 유일의 문화콘텐츠학과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학문이 아니라 융합 학문이고, 또 학생들의 관심 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공통분모를 찾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IT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학과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정부로부터 5년간 매년 3억씩 지원받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의 창의인재 양성이 목적이죠. 문화콘텐츠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와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함께 참여해 각각의 특성을 살려 문화의 원형이나 소스를 찾아 웃을 입히고 실질적인 창작 작업 후 홍보와 방송제작의 흐름으로 토탈 사이클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5개 학과에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5명 정도씩을 선발할 예정이며, 3학년에 심화 교육을 거쳐 4학년에는 기업과 연계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시는 데 있어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콘텐츠'라고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주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늘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명 작가의 육필 원고 한 장, 작은 메모 한 장도 달리 생각하고 귀하게 보존하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문화 강국은 작은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생각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학생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감성과 능력을 키우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모든 창조와 창작의 시작이니까요. ①



문화와 예술, 디자인의 힘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청주대학교

문화도시 청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심 교육기관은 단연 청주대학교다. 오랜 기간 강단에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온 우리대학 교수진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있는 동문들과 재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청대인이 청주시의 문화를 알차게 일구어가고 있다. 교수들의 정책적 아이디어와 연구, 동문들의 예술활동, 재학생들의 입체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청주시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과 연구를 통한 접근- 대학본부와 교수진의 활약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우리대학은 지난 2011년 평생교육원 내에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전통공예, 사진, 디자인 등 충북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대학이 센터의 전체 운영을 맡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재는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진행한 위탁 운영은 종료되고,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충북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예술 강사를 양성하여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 복지기관 등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충북 문화예술교육의 텃밭을 풍성히 일구는 일에 우리대학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C-컬처포럼 참여, 다양한 문화정책 도출

C-컬처포럼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원년을 맞아 청주시만의 특성화된 지역 문화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창립되었다. 분기마다 정책 세미나와 학술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며 통합청주시의 문화정책성을 찾고 문화도시와 문화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이 당면한 문화정책 현안을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학계 등과 두루 협력하여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대학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 등이 참여해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지원

지난 1월 12일, 우리대학 한국문화연구소는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문화연구소는 우리대학 인문대학 내에 있으면서 국문학, 중문학, 일본학 등의 관련 학과와 연계 협력으로 문화교류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문화연구소는 충북대 공자학원과 함께 학술회의 공동 주관과 후원, 개·폐막식을 담당할 예정이며, 통역 등의 자원봉사와 주요 자료 번역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학생들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주요 행사와 사업에 현장학습 등으로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1 청주시문화재단의 청년 서포터즈 '컬처아미' 발대식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의 힘- 동문, 재학생들의 활약

전공지식과 끼를 살린 문화지원 활동

그동안 우리대학 재학생들은 청주시민영화제, 청주문화학생기획단, 청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킴이, 충북 공공 디자인 서포터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문화가 꽃피우는 데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연극학과와 영화학과 학생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공연하는가 하면, 청주시민영화제에서는 영화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독립영화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있다. 공예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우수 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청주국제공예페어에 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젊은 문화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지역문화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 등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청주시 수동 수암골은 우리대학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자극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극학과와 영화학과 학생들은 '수암골 가을 스케치' 문화행사를 주관해 수암골이 벽화마을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70년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펼치는 복고풍 퍼포먼스를 비롯해 옛 시절 대표 먹거리였던 달고나, 솜사탕, 빵튀기 등을 선보였고, 이 밖에도 마술 쇼, 전통문양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시민들에게 선보여 1970년대 향수를 자극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의 힘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주요 인물들에는 우리대학 출신 동문과 교수진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이들의 행보는 곧 우리대학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2009년에 개관한 쉐마미술관 대표 김재관 관장은 우리대학에서 30년 넘게 후진을 양성해온 지역 문화예술계의 터줏대감이다. '기하학적 추상화'라는 독보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하면서 지난 2013년에는 문신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쉐마미술관은 연구실과 같은 품격 있는 미술관을 꾸민 그가 충북의 많은 미술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문을 연 의미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화여성작가회장을 맡고 있는 장혜용 교수는 265명의 여성 한국화가 대표로 회원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무용학과에 수시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윤미라 동문은 현재 청주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무용수이자 안무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청주시 초대 예총회장으로 취임한 오선준 동문, 도예명인으로 선정된 김기중 동문, 청주시의 주요 축제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주문화원장 류귀현 동문, 청주예술오페라단 단장 마리톤 최재성 동문, 벽파춤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무용가 박재희 교수, 충북무용대상을 수상한 성민주 동문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청대인들이 지역 곳곳에서 충북 문화예술계를 풍성하고 내실 있게 가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 청주시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C-컬처포럼 3 우리대학 공예디자인학과 학생들도 참여한 청주국제공예페어 공예장터



4 연극학과와 영화학과 학생들이 주관한 '수암골 가을 스케치'

젊은 그들, 지역에 문화의 꽃을 피우다

TIP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청주대학교 대표 학과들

역사문화도시로서 청주시가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단체와 대학들이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충북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지역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문화도시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들을 소개한다.

문화콘텐츠학과

2011년 충북지역 최초로 문을 연 문화콘텐츠학과는 지역 내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특히 2014년에 선정된 '크리에이티브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주관 학과로 5년 동안 사업단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와 함께 앞으로 인문, 사회과학, 예술의 융합을 도모하면서 지역문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기 중 교육과정 이외에도 전문가 특강과 학과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취업특강 및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특화 문화 콘텐츠산업을 발굴하고,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대학 문화콘텐츠학과는 문화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영화학과

지난해 '제5회 한중 아시아 영상포럼'을 개최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영상산업 교류를 모색한 바 있는 영화학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주지역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2006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영화 도시락'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찾아 다니며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들에게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 등을 알려 주면서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 다큐멘터리, 교육용 애니메이션 등 영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영화 제작 워크숍'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영화의 기획과 연출, 시나리오 작성과 촬영콘티 제작, 촬영스태프 구성, 카메라의 구도와 편집, 음향편집과 더빙에 이르기까지 영상 구성의 전 과정을 가르치며, 종강일에는 수강생 전원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모아 시사회를 열기도 한다. 영화학과 교수도 직접 강의를 맡아 진행하며, 영화를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지난해 3월, 충청북도와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맺은 산업디자인학과는 학생들의 참신한 상상력으로 충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발적인 서포터즈가 되어 생활환경이 낙후된 남·북부권을 중심으로 충북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과 시설물 디자인을 창출하고 홍보하는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재능기부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특화 아이템을 발굴해 브랜드화하는 실전도 함께 경험하면서 지역 공간마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젊은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GLOCAL REPORT

14 · Global Today

청대인의 목소리를 영어로 전합니다!
청대 타임즈

16 · Global Challenge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나를 채우다



청대인의 목소리를 영어로 전합니다!

38년 역사와 전통의 청대 타임즈

여기, 청주대학교를 그리고 한국을 더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하고 싶다는 한국 학생들이 있다. 이들이 함께 매 계절에 한번 우리대학 영자 매거진 <청대 타임즈 (Cheongdae Times)>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문자 속에 꿈과 열정의 하모니를 담아내고 있는 청대 타임즈는 우리대학 언론사의 자부심이자 생생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의 장이다.



1년에 네 번 영어로 전하는 청주대학교 뉴스

25개국 164개 자매대학으로도 발송

청주대학교 영자신문사 <청대 타임즈>는 '즐기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청춘들이 모여 뜨거움과 냉철함으로 젊은 날의 퍼즐을 맞춰가는 곳이다. 올 봄, 194호 발행을 앞두고 있는 청대 타임즈는 40년 가까이 우리대학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1978년 11월 6일 <청주 헤럴드(The Cheongju Herald)>로 창간된 후 1980년부터 다시 <청대 타임즈(The Cheongdae Times)>라는 이름으로 제호를 변경, 현재까지 청주대학교 주요 언론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그동안 신문과 잡지의 형태를 오가면서 다양한 변신을 거듭해온 청대 타임즈는 현재 주간지 형태로 매 계절이 시작되는 3월과 6월, 9월, 12월에 청대인들을 만나고 있다. 매 호 발행되는 2천 부는 교내 학생과 교직원, 국내 50개 주요 대학들, 또 전세계 164개에 달하는 자매대학이 함께 구독하고 있다. 깊이 있게 녹여낸 취재나 기획 기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어 자타공인 인기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대 타임즈를 노크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이어져 매년 5명 이상의 수습기자들이 정기자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 위에 끈기와 열정은 그들의 필요조건. 여기에 유학생들을 포함한 기자 선배들의 정기적인 영어 훈련이 더해져 청대 타임즈 정기자로 거듭나게 된다.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하는 뉴스 만들기의 즐거움

영어 실력은 기본, 사회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논뜨는 계기

현재 청대 타임즈는 몽골과 동티모르 유학생 3명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월에 졸업하는 필리핀과 태국 유학생까지 합치면 지난해에는 10명의 다국적 학생들이 청대 타임즈를 만들어온 셈이다. 지적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등 전공도 다양해 기획회의부터 취재와 원고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슈마다 다각적인 견해와 생각 나눔이 가능하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든지 자유롭게 논의한 후 해당 호의 커버스토리와 특집, 사회, 인물, 오피니언, 문화, 국제, 리뷰 등의 꼭지 성격에 맞춰 각자 취재거리를 나누면 이제 본격적으로 필 차례다. 취재원을 찾아 섭외하는 일부터 원고 오탈자 교정까지 매 단계가 적당한 긴장과 즐거움,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다.

취재와 기사작성은 대부분 선배와 후배, 외국인과 한국인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 사회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한국 학생은 영문 기사를 작성하면서 영어 실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게 된다. 영어로 기사를 쓴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리 막연한 일도 아니다. 선배 기자와 국장의 도움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조금 더 적합한 단어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전담 외국인 교수의 검수도 받는다. 무엇보다 취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세상이 좋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청대 타임즈의 기사가 단 한 명의 독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이들에게 '청대 타임즈 기자'라는 타이틀은 최고의 자부심이다. ①

TIP

나를 키운 청대 타임즈, 그때 그 기사



오용한(국장, 경제학과 4학년)

"2012년에 유학을 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영어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청대 타임즈 기자가 되었어요. 작년엔 국장으로 활동했고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니 한국어도 더 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무척 도움이 됩니다. 2013년 봄호에 'Study Abroad, Open Yourself to a New World'라는 기사를 썼는데, 유학을 결심하고 청주대학교로 오게 된 저의 경험을 전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유감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또, 어떤 때는 방학 때 고향 몽골에 가서 청주대학교를 졸업한 몽골 동문을 만나 인터뷰했던 적도 있었는데,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박솔이(기자, 지적학과 2학년)

"대학에 입학해서도 영어는 한마디로 회피하고 싶은 존재였는데, 이전 자신감이 붙었어요. 옆에서 선배들이 도와주니까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호에 썼던 세월호 관련 기사나 학교 축제 기사를 쓰면서 느낀 건데, 그 뉴스와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만의 시선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훈련도 되고요. 2014년 겨울호에선 청대 학보에 나온 뉴스를 발췌해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청대 타임즈 기자가 아니었다면 무심코 지나칠 것들에 새롭게 눈 뜨는 기분입니다."

김지현(기자, 정치외교학과 2학년)

"취재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또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청대 타임즈는 매 꼭지 기사 상단에 기자 사진도 함께 실리는데, 교수님들이 알아봐주시기도 해요. 기사 잘 읽었노라고, 그때 정말 뿌듯하죠. 2014년 여름호에 월드컵에 관한 기획 기사를 작업할 땐 동티모르 출신 선배를 도와 사진을 찾고 출처를 밝히는 정도의 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가을호엔 처음으로 교내 취업센터를 취재해 직접 기사를 썼어요. 지난 겨울호엔 다문화카페를 운영하시는 동문 선배를 취재했는데,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도 되었고요. 취재를 하면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물어야 하는구나 느끼면서 조금씩 기자의 노하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나를 채우다

우리대학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기초 어학연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사회생활을 체험해본다는 의미와 함께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외 인턴십을 경험하고 돌아온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지의 교육기관에서, 또는 중국 자매대학 한국어 보조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청대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구촌'의 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편견과 차별 대신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캐나다 시골마을의 작은 학교에 가다

이보배 관광경영학과 11학번

1학년울 마치고 휴학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캐나다 토론토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당시에 캐나다 교육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탓에 꼭 한번 캐나다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마냥 신나기만 했다.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시골마을, 내가 꿈꾸고 그려왔던 그 느낌 그대로였다.

인턴으로 근무했던 Kennetcook District School은 전체 반이 4개인 소규모 학교였다. Primary&Grade1, Grade1&2, Grade3&4, Grade5&6 이렇게 묶어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 곳에서 나는 한 달에 한 반씩 돌아가면서 수업보조 업무를 진행했다. 주로 수학, 읽기, 쓰기 수업이었는데, 수학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Grade5&6반의 읽기나 쓰기 수업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비영어권의 외국인 선생님을 배려하는 아이들 덕분에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다. 처음 2개월 정도는 가볍게 수업보조 업무와 수업시작 전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정도만 하다가 남은 2개월 동안은 내가 직접 수업을 계획해서 하고, 한국문화 수업도 별도로 진행했다. 한국문화 수업은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PPT로 정리해 설명하고, 한국의 전통무늬 책갈피나 하회탈 만들기, 한복 색칠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Kennetcook District School에는 autism 즉,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자폐증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특별하고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Primary반 'Cody'라는 아이는 정말 각별했다. 첫 출근하던 날부터 등교시간에 울고 소리 지르고 물 건 던지는 모습을 봤었는데, 매일 아침 그 반에서 책을 읽어주던 나는 울고 떼쓰는 코디를 진정시키려고 더 열심히 책을 읽어줬고, 그런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코디도 조금씩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서 울컥하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체육시간에 내 손을 잡고 까르르 웃는 코디의 얼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인턴십 마지막 날 코디와 코디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고 거의 통곡하다시피 울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과 헤어지던 날,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나를 위한 깜짝 파티를 해주시고, 전교생이 함께 만든 담요선물을 주셨는데,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동안 나를 아껴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인턴십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특히,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을 다해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불평과 불만들, 가령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표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는 정말 편견이 없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먼저 스스로를 반성해보았다. 나 역시 그러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무의식 중에 그것을 표출했던 것 같다. 인턴십 이후 비로소 나는 온전히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까.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Kennetcook District School에도 부모의 학대나 기타 이유들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TIP

캐나다 교육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 지원자격 | 총 평균 평점이 2.6 이상이고, 영어회화 및 독해가 가능한 성실한 재학생
 - 교육내용 |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주 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
 - 기간 | 4개월 ~ 6개월(학기별 시행)
 - 비용 | 참가비 무료, 현지 숙박비 및 기타 비용(CAD 1,500/월)은 학생 본인 부담
 - 장학지원 | 1) 연수 수료 후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등록금액 전액 감면
2) 16주 과정 12학점, 20주 과정 15학점 인정
- ※ 선발된 학생은 연수학기 동안 우리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관통하는 따뜻한 인정(人情)

김지은 중국통상학과 09학번

한국어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나는 우연히 '한국어 보조교사 인턴십 모집'이라는 국제교류처 홍보 책자의 모집공고를 보았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할 당시 희망하는 중국대학을 기재해야 했는데, 이전에 중국 산둥성 근처에서 교환학생을 수료한 상태였던 나는 이번엔 중국 남부지방인 광둥성의 문화를 경험하고자 광둥해양대를 선택했다. 최종 선발되고 나서 선배들이나 국제교류처 직원분들에게 광둥해양대는 다른 중국대학들과 달리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평균 4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 적응해야 하는데, 잘 헤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충고를 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마치 동남아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주변에 야자수나무도 많고,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열대과일도 많아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다. 광둥해양대는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 걸리는 담강에 위치해 있다.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편이지만, 바다와도 매우 근접해 있어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그곳에서 학생들과 휴식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나는 '한국어 보조교사'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한국어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초급오후반을 맡은 나는 준비한 책과 자료를 토대로 수업에 임했고, 말하기 능력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위해 '3.6.9 게임'이나 '끝말잇기 게임' 등을 하면서 쉽게 한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또래여서 친구처럼 지냈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숙소에 학생들을 초대해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가다 보니, 어떤 날은 한 중국 학생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냥 간단한 식사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갔는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하니 이모, 고모, 조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대가족이 모두 모여 나를 맞아주셨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지역의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중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중국에서 우리말 수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을 꼽자면, 모국어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려운 언어라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왜 한글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인턴십 이후 놀랍게도 담강에서 같이 수업하던 학생들이 한국의 어학당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 꾸준히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주변의 유학생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며 그들의 유학생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었음에 감사한다. ①



TIP

중국 자매대학 한국어 보조교사 인턴십 프로그램

- 지원자격** |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하고, 총 평점평균 2.6 이상인 본교 재학생
- 지원자격** | 교내 사전교육과 중국 현지연수로 구성, 본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소정의 연수를 마치고 중국 자매대학에 4주간 파견되어 한국어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학생들과 문화 교류
- 기간** | 학기 중 2주(본교) + 하계방학 중 4주(중국 자매대학)
- 비용** | 참가비 무료, 현지 숙식(전액 or 일부)은 현지 대학에서 지원
- 장학지원** | 1) 연수 수료 후 다음 학기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수업료 20만원 감면 (단,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 수혜 불가)
2) 본교 교양 3학점 인정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넨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WOW PEOPLE

<p>20 · 청인보 제1장</p> <p>청주시 부시장 윤재길 동문</p>	<p>24 · 청인보 제2장</p> <p>KBS 글로벌센터장 김영국 동문</p>	<p>26 · 청인보 제3장</p> <p>미녀와김치(주) 대표 윤지영 동문</p>	<p>28 · 청인보 제4장</p> <p>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장, 광고홍보학과 정상수 교수</p>

정성과 신념으로

풍요로운 시정을 이끌다

청주시 부시장
윤재길 동문 법학과 77학번



역시나 한결같음이었다. 그 자리를 지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주위에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의 자리는 그렇게 빛나는 법이었다. 40년 가까이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며 민생을 돌봐온 윤재길 동문이 지난 11월 20일 청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문화적 자부심 위에 경제적 융성을 이루는 청주시를 위해 또 다시 최선을 길을 걷겠노라 말하는 그, 청대인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40여 년 공직생활의 내공이 만든 부시장의 자리

“한자리에서 정성을 들이다 보면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것에, 각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신념을 지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알아줍니다.”



1977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음성군청에서만 19년을 몸담으며 읍, 면, 군의 살림살이를 두루 돌보아왔다. 이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경제정책팀장, 군환경설국장, 경제통상국장을 지냈고, 어느새 충북의 ‘경제통’이라는 별칭도 주어졌다. 윤재길 동문에겐 그저 공직이 천직이라 믿으며 ‘지금 이 자리’마다 정성을 들여 묵묵히 걸어온 길이었을 뿐, 청주시 부시장은 그의 계획 속에 없던 자리였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앉게 된 자리다. “지방 공무원으로 출발해 줄곧 지방에서만 활동해온 사람인데, 고위직으로 승진한 셈이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청주시 부시장으로 공식 취임한 윤재길 동문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평가되었다며 겸손한 말을 내놓았지만, 이내 곧 이어진 청주시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부시장 적임자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막힘 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은 사실상 주요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만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청주시의 3천3백여 공무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시청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의 현안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그이기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소상공인과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필두로 하는 경제 관련 업무에 윤재길 동문만의 관록이 어떻게 발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와 문화를 양 축으로 하는 통합청주시의 미래

“지난해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인구 85만의 도시가 되었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시정의 볼륨도 커졌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복합형 도시인만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하고, 소통과 화합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청주시는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1년을 보내게 될 예정이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이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된다. 또,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정비(MRO)사업과 오송역세권개발 추진, 청주 1·2산업단지 테크노밸리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통합 후 시의 각 부서들이 6개 건물에 각각 나뉘어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청사를 증축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과제로 남아있고, 2개의 구청사는 신축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청주시가 본격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윤재길 동문도 새로운 도시의 부시장으로서 함께 출발하는 셈이다. 이런 그에게 하루는 마냥 짧다. 매일 아침 8시 회의로 시작된 하루는 늦은 저녁 회의로 마감한다. 시 산하에는 총 65개의 개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직은 모두 부시장 몫이다. 지역마다, 또 업무마다 테마회의와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그때마다 그는 해결책을 찾는 지휘자가 된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는 모든 답은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소단위 행정을 많이 접해왔던 경험이 축적되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단단한 내공이 되었다. 지역경제와 문화적 발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청주시를 건강하게 잘 운영해나가고 싶은 그의 욕심엔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대인의 삶

“우리 청주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도시이자 교육의 도시로 오랜 시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이 우리 시의 정체성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융성해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 또한 이것입니다. 마치 한자리에서 정성을 들이다 보면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것에, 각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신념을 지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알아줍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신념이라는 윤재길 동문은 이렇게 온돌 같은 삶의 태도를 말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학시절부터 지녀온 이 마음이 청주대학교의 전통과 역사 안에서 농익었다는 윤재길 동문.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동문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곤 한다. 모교가, 동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가슴 뚫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그에게 당신이야 말로 청대인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는 말을 전한다. ④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가운데, 시들지 않는 패기와 열정이

KBS 글로벌센터장
김영국 동문 법학과 80학번

“1983년 총학생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축제에 가수를 섭외하지 않고 공욕진 여사를 초대해 운동장에서 공연하게 했죠. 학교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오시고 반응이 굉장했어요. 또 축포를 쏘지 않고 우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와 연막탄을 쏘아 올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생각과 기획력이 있었던 것이다. KBS에서 교양 다큐멘터리 PD로 25년간 자신만의 프로그램 영역을 구축해온 김영국 동문. 달라도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배짱과 비결을 그는 모교인 청주대에서 찾는다. 2000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백두산과 한라산, KBS의 삼원 생방송을 총 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모교에서 다져온 패기 덕분이라 말한다. 그는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프로그램으로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과 다른 시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 교양 다큐멘터리 PD로 세상에 울곧은 목소리를 내어 왔던 김영국 동문은 30년 가까이 KBS에 근무하며 KBS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일궈온 장본인이다. 2014년 8월부터 KBS 글로벌센터장을 맡아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를 만나 KBS와 함께 뜨거운 청춘을 보내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오늘의 감회를 물었다.

“교양 다큐멘터리 PD는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일조해야지요. 그게 언론인의 역할 아닙니까?”

〈추적 60분〉, 〈6시 내고향〉, 〈공개수배 사건 25시〉, 〈피플 세상 속으로〉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신념을 담았다.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과 절대 시간을 거쳐야 하는 수공업 이기에 제작자의 숨결이 콘텐츠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두 번의 교양국장 자리를 맡을 당시에도, KBS N 사장으로서 있을 때에도 방송국 후배들에게 늘 힘주어 말했던 바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지난해 8월 KBS 글로벌센터장에 임명되었다. KBS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잘 알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자리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계의 방송사들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역시 그의 몫이다.



“한류의 중심에 KBS가 있습니다. KBS 월드 채널이 전 세계 99개국에 런칭되고, 〈개그콘서트〉와 〈1박2일〉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포맷도 수출되고 있어요. 요즘 매주 금요일마다 〈뮤직뱅크〉 생방송 현장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나 북유럽에서도 방청객이 몰려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죠.”

대한민국의 방송 콘텐츠가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는 현장들을 보며 그 최일선에 KBS가 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다. 마치 대학시절, 존경하는 장학자 김원근, 김영근 형제 분이 청주대학교를 일구며 키워온 일화를 들으면서 감동했던 순간처럼 말이다.

“대성중에서 청석고, 청주대까지 줄곧 청석학원 산하 학교들을 다녔어요. 그래서인지 모교에 대한 애정이 무척 큼니다. 단 한 번도 상당구 내덕동 36번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주대는 정말 대단한 민족 사학입니다.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희생해온 두 장학자 분의 일생을 살펴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법학과 은사님이셨던 홍신희, 정용태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 들 때마다 꼭 학교를 찾아 정문부터 예술대학까지 천천히 돌아본다는 김영국 동문의 에너지원은 여전히 청석골인 듯 했다. 중학교 시절, 송아지를 물고 다닐 때부터 PD가 되고 싶었던 소년의 꿈이 청주대에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어른과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꽃을 피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많았고, 능동적으로 살고 싶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만들어가고 싶어 변함 없이 걸어온 방송인의 길. 그리고 김영국 동문이 앞으로 새롭게 열거할 길은 현재 KBS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여 명의 청주대 동문들에게 또 다른 용기와 자극이 될 것이다.

“방송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확인케 하면서 리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선택,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득이 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모교에서 배운 대로 말이죠.” ㉞



김치공장에서 김치 빌리지까지, 꿈에 다리를 놓다

미녀와김치(주) 대표
윤지영 동문 관광경영학과 06학번

‘농촌에서 꿈을 이룰 아이.’ 서툰 농사일기를 적어 내려간 그녀의 블로그 프로필에 적혀 있는 그대로다. 스물 여덟에 김치공장 대표가 되어 맥문동 김치를 선보이고 있는 윤지영 동문은 젊은 창업자의 모범 답안처럼 힘차게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두레기업 1호 ‘미녀와김치(주)’ 다음엔 김치 빌리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 벌써부터 그녀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칠갑산의 기운을 받아 공기부터 다른 이곳에 김치를 만드는 미녀 사장, 윤지영 동문이 있다. 대학 4학년 때 창업을 결심하고 일사천리로 그 꿈을 위해 달려온, 젊은 그녀의 창업 스토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절로 뚫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며 김치 만드는 이야기는 인간극장처럼 푸근하고, 훗날이 마을에 김치 빌리지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야심 찬 계획은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자서전처럼 짜릿하다. 왜 김치였을까? 그 시작은 엄마의 김치였다. 농사를 지으며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서울 등지의 직거래장터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하시는데, 단골들이 김치통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그때가 대학 3학년 때였는데, 엄마 김치를 매일 먹으면서도 사업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엄마 아빠의 또 다른 일이라고만 여겼죠. 막연히 김치사업을 생각하던 터에 4학년 수업시간에 이익수 교수님께서 왜 한국 대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하지 않느냐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창업에도 문을 두드려보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어요.”

오직 밀바닥부터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안고, 최종 합격한 회사도 포기하고 2010년 고향 청양에 터를 잡았다. 졸업 후 처음으로 한 일이 청양군 4H연합에 가입한 것. 또 청양군 가공대학에서 농산물 가공과정을 공부했고, 한국벤처농업대학 1년 과정도 들으면서 전국의 농기업인들을 만나 간접 경험을 하며 꿈을 구체화해 나갔다. 김치 만들기가, 또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겠냐며 반대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1년 동안 밭농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배추씨를 심고,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갓 뽑은 열무로 김치도 만들면서 땅과 더 친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사를 곁에서 보아는 왔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2012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다. 충청남도 6차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그녀는 김치가공공장 사업계획안을 제출했고, 총 4차에 걸친 심사 결과 충청남도 제1호 두레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마을 구성원에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총 사업비 10억2천만 원 중 8억 원을 지원받고, 백곡리의 20여 농가가 참여해 마침내 미녀와김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스물여섯 살 여자가 김치 사업을 한다고 하니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사업 선정할 당시에도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지 않느냐는 평도 있었지만, ‘충남 농업에서 윤지영은 실패해도 성공이다’는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윤지영 동문은 그렇게 잊지 못할 인생의 한 마디를 동력 삼아 2014년 3월 공장을 준공했고, 하루 최대 4톤의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 1년간 공장을 가동했다. 마을 할머니 여덟 분이 직원이 되어 손맛을 발휘하고 있고,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와 무, 고추, 부추, 맥문동 등을 계약 제배해 현재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 석박지,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 11개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특산품인 맥문동을 넣은 김치를 특허 출원했고, 토마토 장아찌 등의 신제품도 개발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농어촌청소년대상에서 농업부문 특별상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거침없이 사업을 일구어가는 그녀의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제 사업계획서에서 최종 목표는 김치 빌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꿈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우선 공장을 잘 운영하면서 올해는 공장 옆에 농가식당을 차려 묵은지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려고 해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니, 정말 잘해내야죠.”

40대가 되면 지금 생각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되묻는 그녀의 강단이 증명하듯 이 마을에 김치 빌리지가 들어서서 그 날은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④

지어낼 줄 아는 힘으로 ‘광고’라는 우주를 품다

광고홍보학과 교수, 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장 정상수 교수

‘지어내는 일은 어려워도 오래가고 재미있다’며 현업 광고인 못지않은 아이디어를 품고 사는 정상수 교수. 다국적 광고대행사의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쌓아온 오랜 내공을 청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제12회 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장이 되어 한바탕 광고축제를 즐겼다. 여전히 뜨거운 청춘의 마음으로 말이다.



광고, 이 단어 하나에 가슴이 요동쳐 본 이는 안다. 광고가 얼마나 매력적인 우주를 품고 있는지. 용기를 주는 카피 한 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개그보다 더 웃겨주는 장면에선 하루의 고단함이 날아가고, 가끔은 눈물 고이는 진한 감동도 덤으로 안겨준다. 그래 봤자 광고지, 해도 마음을 빼앗기는 건 어쩔 수 없다. 20대 후반에 광고 인생을 시작한 정상수 교수는 술한 광고와 동고동락하며 우리나라 광고마당을 넓혀온 광고인이다. 7,80년대에 아역 배우로 활동하면서, 또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을 공부하면서 천성처럼 품은 이야기꾼의 기질을 그 짧은 30초 영상에 녹여왔다.

“광고 현장을 떠난 지 좀 되었지만, 광고를 심사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울렁거려요. 정말 좋은 광고를 보면 흥분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이번에도 광고제에 출품된 다양한 광고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들락날락하더군요.”

12회를 맞은 서울영상광고제 TVCF 어워드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가을부터 1월 15일까지 광고제를 이끈 정상수 교수. 광고인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영상광고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 일처럼 반가운 일이었고, 후배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감상하는 일은 자식의 발전을 보는 것처럼 흐뭇한 일이었다.

서울영상광고제는 지상파와 케이블 TV광고는 물론이고 인터넷광고, 극장광고, 바이럴 비디오, 옥외전파광고 등 한 해 동안 방송되었던 모든 매체의 영상광고 가운데 최고의 광고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에는 총 4,396편 가운데 네티즌과 36인의 전문심사위원단, 본상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25편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올해도 약 25만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지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선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결과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해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는 서울영상광고제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더 많은 영상 분야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했다. 세계적인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과 업무 제휴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영상광고제로 거듭날 준비도 하고 있다. 뉴욕페스티벌과 AME 어워드, 부산국제광고제 등 국내외 굵직한 광고제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해온 그의 진가가 발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고인으로서 그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오리콤에서 대리리 시작해 오길비앤매더코리아 상무이사, 금강오길비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리를 경험했지만, 생각을 모으고 직접 광고를 만들던 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없다고 말한다. 철저히 이야기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그 즈음 자리 잡았다. 사실 정상수 교수는 국내 CD(Creative Director) 1호다. 팀을 이끌며 광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그 자리가 그를 키운 것이다.

“영상도 만들 줄 알고, 스케치도 가능해서 덩석 CD를 맡았는데, 뭐든 재빨리 지어내고 팀을 움직이는 과정이 참 재미있더군요. 그때 당시 IBM, 네슬레, 코닥, 코카콜라, 벤츠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일하면서 오히려 제가 광고주들에게 시스템과 노하우를 많이 배웠습니다.”

광고인생 초반에 뻗속 깊이 새겨진 ‘지어낼 줄 아는 힘’. 정상수 교수의 오랜 양식이자 제자들에게도 깨우쳐주고 싶은 광고인의 덕목이다. 모든 아이디어의 원형은 그림 하나, 키워드 한 줄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마음껏 표현해내는 훈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꼭 광고가 아니어도 좋아요.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몸에 배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좋은 기술을 얻게 되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지 입증하면 게임 끝입니다.”

광고의 바다를 헤엄치는 제자들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일러가길 바라는 만년 광고인이자 스승의 진정한 소망이다. ☺

*장소협조 : 한국광고박물관



이 순간의
고요와 적막을 채우는
대지의 속삭임을
경청하라

소리를 지우고, 색채를 지우고, 흔적을 지우는 일이 필요한 계절이다.
그 빈 자리에 순백의 고요와 적막을 채우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그려 넣을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면 된다.

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있을 뿐이다.
고요한 함성처럼 들려오는 대지의 속삭임과 함께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삶의 서막을 연다.
우리의 내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청대인의 인연과 추억을 하나로 엮다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
소중한 인연의 끈을 오래도록 이어준
지나간 시간과 추억이 가슴 속에 존재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청대인'입니다.

WOW MESSENGER

32 • Bravo Your Life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동문 4인방

34 • Beautiful Reunion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믿음,
건축공학과 한천구 교수 · 충북건축사협회장 한재희 동문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동문 4인방



윤희숙
사회복지학과 06학번,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유응모
사회복지학과 85학번,
대우꿈동산 대표

한수동
사회복지학과 87학번,
대우꿈동산 부장

김영은
사회복지학과 02학번,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이의
관심과 사랑, 경험이 아이의 성장을 이끈다.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에 자리한 대우꿈동산에는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소년소녀가정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아파트 2개 동
앞마당에 닭과 토끼, 강아지가 함께 노니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이곳을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동문 네 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가꾸고 있다.



대우꿈동산은 국내의 어느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아동복지
기관이다. 소년소녀가정이 가족의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연한 사
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인세 전액이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될 아파
트 2개 동 건립에 쓰였고, 1992년 14가구가 처음 입주하면서 대우꿈동산
의 문이 열렸다. 22평과 11평 아파트에 총 91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는 44가구가 이곳에서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1992년 대우꿈동산 초
창기부터 이곳의 큰 아버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응모 동문을 비롯해
한수동, 김영은, 윤희숙 동문은 모두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
중한 가족이다.

“대우꿈동산은 입주하는 아이들의 가족 구성을 절대 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같이 살기도 하고, 조손 가정도
있지요. 혼자 들어온 아이는 상주 자원봉사자가 가족이 되어
함께 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각
가정의 아이들이 자립의 꿈을 키우며 성장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돕는 것입니다.” - 유응모 대표

대우꿈동산에 문을 두드린 소년소녀가정은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고,
그들은 서로 이웃이 된다. 기존 복지시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일괄적으로
챙겨주고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대우꿈동산은 개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해
가는 과정을 철저히 돕는다. 아이들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과 후원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사부터 세탁, 청소 등도 여느 집들과 똑같이 하면서
출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운다. 물론 아직 능력이 안돼 도움을 받아야 할 어
린 아이들에게는 사회복지사들의 세심한 도움이 뒤따른다.

“저는 유응모 선배보다 1년 늦게 이곳에 합류했는데, 그때가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이었으니 꽤 어렸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제 열정은 저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 첫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른 것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배우는
것도 많아요. 처음에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하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점차 태도가 달라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됩니다.” - 한수동 부장

“대학 다닐 때 유응모 대표님의 수업으로 <자원봉사론>을
들었는데, 그때 이곳 상주 자원봉사자로 인연을 맺고 또 직원이
되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해 나간 후에도 의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오는 모습이 참 좋아요. 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90% 이상이 꿈동산 관련 사람들이예요. 어느새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된 거죠.” - 김영은 사회복지사

“저는 봉명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과학,
미술, 요리, 학습 등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쁘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곳에 살면서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을 보며 꿈을 키웠던 것처럼 더 많은
아이들이 큰 꿈을 찾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 윤희숙 사회복지사

네 명의 사회복지사가 모두 같은 대학의 선배배 관계이다 보니 생각 외의
시너지를 내놓기도 한다. 윤희숙 동문의 경우처럼 입주자로 살았던 소년
소녀가장이 청주대학교 후배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로 인
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결고리가 한결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다.
설립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 없이 대우재단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대우꿈
동산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자원
봉사자들, 특히 상주 자원봉사자들의 확보였기 때문이다.

“저희가 20년 넘도록 소년소녀가정의 울타리로 건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같은
절실함으로 아이들을 함께 보듬어주십니다. 아직 대우꿈동산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와주길 바랍니다.” - 한수동 부장

“이런 시스템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한 몸
편히 설 수 있는 보금자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심코 건네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럴듯한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보는 이곳이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 윤희숙 사회복지사

“요사이 결혼, 돌잔치 초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립해서 나간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죠. 저마다의 일터에서 전문가로
자립한 아이들은 저희에게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시집
장가보낸 자식이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같다고 할까요. 아주 든든합니다. 이곳 아이들이 먼 훗날
여기에서 살았던 것이 참 좋았다, 재미있었다고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 유응모 대표

대우꿈동산과 같은 시스템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곳처럼 운영될 수
있을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고 가능한 일일까? 아이들을 있는 그대
로 좋아하지 않으면, 온 마음으로 아이의 삶과 함께하지 않으면 요원한 일
일 것이다. 복지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때. 근무시간을 셈하지
않고 아이들 일에 발벗고 나서며, 모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 대우꿈동산 사회복지사 동
문 4인방의 나눔과 희생이 우리 사회 한 부분을 조용히, 그리고 선명히 밝
혀주고 있다. ㉠

사제동행(師弟同行),
그때 그 시절 은사와의 만남



스승 **한천구** 교수
건축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

제자 **한재희** 동문
건축공학과 80학번, 석산건축사무소장,
충북건축사협회장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믿음 위,

건축 장인의
길을 걷다

35년간 '콘크리트'라는 한 우물을 파온 한천구 교수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소위 '청주대학파'의 뿌리다. 백발의 '콘크리트 박사'에게서 젊은 시절 배움의 기쁨을 누렸던 한재희 동문은 충북건축사협회를 이끌며 안전한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연구의 즐거움을 찾는 노 교수의 열정은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며 대한민국 건축 미래에 희망이 되고 있다.

한재희 교수님, 요즘 제2롯데월드 건으로 꽤 분주하시죠. 잠실 현장도 방문하시고 발표회도 몇 차례 가지셨던데요.

한천구 콘트리트 균열과 관련된 일인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네.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집약된 슈퍼타워잖나. 일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지.

한재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대학 출신들이 콘크리트 전문가로 대거 포진해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천구 석·박사 포함해서 한 270여 명쯤 될 거야. 이 정도면 청주대학파를 이룰 정도지. 내가 청주대에 왔을 때만 해도 서른이 채 안됐었는데, 그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제자가 되어준 이들이 어느새 그렇게 많아졌어. 자네하고는 열한 살 차이라 학교 밖에서 만날 때는 선배님, 형님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랬지 아냐.

한재희 제가 80학번이긴 한데, 휴교령으로 1년 쉬고 교수님 오신 81년부터 공부다운 공부를 했죠. 지금도 그러지만, 실험실에서 거의 사셨잖아요. 그땐 중동 붐이 일어서 건축공학과가 취직이 가장 잘 되는 학과라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건축이 뭔지, 콘크리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재료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는데, 교수님 오시면서 우리 학과가 시공과 재료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천구 처음에는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 수영하는 고무 풀장예다 콘크리트 시험체를 양생했던 적도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땐 오직 열정 하나로 학생들을 가르쳤지.

한재희 교수님께 재료, 시공, 적산을 배웠어요. 일하면서 그때 배운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팔렸던 기사시험 교재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그 책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 말이죠.



“우리 학교 건물 리모델링 공모에서
당당히 선정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네.
지금 또 충북건축사협회 회장도 맡아
잘 운영하고 있잖아.
자네는 워낙 통솔력이 좋아서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고 있네.”

한천구 1984년이었지? 건축기사 실기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주관식 실기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아무도 대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시험대비를 시작했지. 1차 시험에 합격한 20명이 여름방학 내내 모두 나와서 파트 별로 나눠 문제를 만들고, 그걸 책 한 권으로 묶어서 공부했으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전국에서 최종 합격자가 50명이 채 안되었는데, 그 가운데 청주대생이 19명이었잖아.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지. 그 책을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학생들이 교재로 삼아 공부했고.

한재희 재료시공연구회 이름으로 낸 건축기사 실기 문제집이었죠. 근 1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 덕분에 우리 과도 저절로 홍보효과를 누렸고요.

한천구 지금 생각하니 84년에 기억할 일이 많군. 그 해 가을, 부산대에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있었지. 그때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전국대학생논문발표대회에 참가했는데, 재료시공 분야 주제 발표 논문 여덟 편 가운데 청주대가 다섯 편을 발표한 거야. 그때부터 꼭 우리학교가 이 분야에서 연구와 논문 발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이어오고 있지. 난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역학, 철골, 철근을 제대로 공부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한재희 대학원 시절에 콘크리트 관련 석사논문을 쓰시면서 콘크리트와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격변기여서 이런저런 분야를 공부하셨다고요. 교수님 연구 욕심을 따라올 자가 없을 걸요. 정년 때까지 논문 3천 편을 약속하셨잖아요. 신기술도 일곱 건이나. 단일 학교로는 최고가 아닐까요? 정말 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한천구 모두 자네들 덕분이야. 나 혼자 이뤄온 것은 절대 아니야. 지금 2천5백 편 정도 썼는데, 정년까지 3년 정도 남았으니 더 분발해야겠군.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면 엉뚱한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해. 설탕 콘크리트, 식용유 콘크리트, 마이크로 버블 콘크리트 모두 엉뚱해 보여도 뭔가 분명히 나올 거라 믿었네. 폐기물을 활용한 콘크리트 개발도 생각 중인데, 이번 겨울방학에 계속 진행 중이야. 생각만 해도 신이 나네.

한재희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엔 언제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북적거렸지요. 전 세계에서 시도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또 장학금도 많이 지원해주시니까요. 예전에 교수님 댁에서 큰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 용달차로 날라 주시던 기억도 납니다. 연구실에서 라면이랑 함께 참 맛있게 먹었지요.

한천구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 외국인 학생들 숙소도 있네. 뭐든 신바람이 있어야 해. 자네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나. 95년도부터 설계사무실을 운영해왔으니 상당한 관록이 쌓였지. 우리 학교 건물 리모델링 공모에서 당당히 선정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네. 지금 또 충북건축사협회 회장도 맡아 잘 운영하고 있잖아. 자네는 워낙 통솔력이 좋아서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고 있네.

한재희 지역에서 우리학교 건축공학과 출신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한 덕을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청주대 출신들이 충북의 설계시장을 휩어지고 왔던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설계 분야에서 나름대로 무언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오셨던 것처럼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한천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료와 관련성이 높아. 설계하는 이들도 잘 알아야 하지.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료에 관해 모르면 안돼. 최근 건물들 대형사고를 보면 그렇지 않나. 난 그런 면에서 자네 작업에 믿음이 가네. 그리고 중국에는 자네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네. 또 전문 실무자로서 학교 강단에 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한 수 지도해주길 바라고.

한재희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정년이 3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연구하세요. 교수님 퇴임하시면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시는 거라 벌써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교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연구들이 후학들에게도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

“대학원 시절에 콘크리트 관련 석사논문을 쓰시면서 콘크리트와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년 때까지 논문 3천 편을 약속하셨잖아요. 신기술도 일곱 건이나. 단일 학교로는 최고가 아닐까요? 정말 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ISSUE & NEWS

38 · Focus On

방사선·치위생 졸업예정자,
전원 국가시험 합격 외



42 · News Brief

청주대,
신임 황신모 총장 취임 외



46 · People News

김경식 교수, 제14회 충북도민대상
문화체육부문 수상 외



Focus. 1

방사선·치위생 졸업예정자, 전원 국가시험 합격

우리대학 2015년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한국보건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방사선사·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우리대학 방사선학과 졸업예정자 10명,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23명은 최근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다. 2개 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우리대학 보건의료대학이 다시 한번 충북 보건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방사선학과는 2015년 전국 평균합격률이 68.5%인 가운데 전원 합격의 결실을 이루며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방사선학과 성열훈 학과장은 "최근 방사선사 국가고시가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실무 위주의 시험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한 실습과 3차원 의료영상실습 특성화 교육을 통한 기초의학의 강화, 방사선 실무인증평가 및 실전초음파 인증평가를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 대학병원에서의 기본 및 심화 임상실습을 통한 전문방사선사 배출을 목표로 한 것이 주요한 합격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치위생학과 김선주 학과장 역시 "학교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학습환경과 체계적인 치위생 교육과정을 구축했고, 책임교수제를 통해 1대1 개별맞춤교육을 시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치위생학과는 지난 제4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도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졸업자들의 전원 취업으로 2013년 교육부 발표 개별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Focus. 2

산업디자인학과, 충북 의료기기 디자인공모전 석권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기치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충북 의료기기 우수제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금상, 은상, 장려상 등 총 14점이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대상을 수상한 산업디자인학과 2학년 조성욱 학생의 'Dual Lighting'은 환자 진료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바형 라이트와 플래시형 라이트로 변형되는 디자인을 구현, 의료진의 사용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점이 대상 수상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3학년 김태경 학생의 PLAN 'A'와 3학년 조빛나 학생의 콘택트렌즈 패키지 'Pebble' 그리고 2학년 권혁삼 학생의 접이식 의료용 들것인 'B' Stretcher가 금상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해 우리대학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공모전인 iF, IDEA, reddot, SPARK 등에서 모두 수상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고, 2008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기관장상, 특허청 주관 대학창의발명대회 최우수상 등 전국 규모의 디자인대회를 모두 섭렵한 데 이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충북공공디자인 공모전, 현대산업디자인대전, 충북의료기기 공모전 등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공모전을 휩쓴 전무후무한 '쿼드러플'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디자인 명문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안과 사회적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디자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온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와 글로벌 역량이 발휘된 것이라 하겠다.



Focus. 3

청주대 학군단, 전국 최다 정원 확보

우리대학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 전국 최다 정원을 확보했다. 최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주관한 학군사관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청주대학교 학군단은 55기 6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군사관 후보생의 정원을 축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육군본부의 방침을 고려했을 때, 대폭적인 학군단의 정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소율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다의 정원을 확보한 것에는 우리 학군단의 노력과 대학 본부 측의 지원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다.

학군단 건물 신축, 안보공원 조성, 후보생 장학금 지급, 동·하계 입영훈련 및 해외 군사문화 탐방 지원, 교육기자재 확충 등 그동안 우리대학은 학군사관 후보생의 교육여건 증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2,1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오랜 전통 아래 후배들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53기, 54기 후보생들 역시 왕성히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군사학과와 손을 잡고 여성후보생 모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후보생 스쿨'을 운영, 집체교육과 여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통합 임무수행을 펼쳐온 것도 이번 정원 획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주대학교 학군단은 대학 측과 협의하여 여성후보생을 위한 생활지도실, 사위장, 화장실 등의 교육지원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여성획득관도 선발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Focus. 4

청주대, 제5회 한중아시아 영상포럼 개최

지난 10월 13일, 우리대학은 국제 민간 교류협력 재단인 실�크로드재단과 함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에듀피아 상영관에서 제5회 한중아시아 영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상산업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상포럼에는 카자흐스탄 아씨야 바이고지나 감독의 <A Khaidarov. The fairy Chronicles>과 키르기스스탄 에르네스트 에비디자파로브 감독의 <Taranchi> 등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영화 15편이 상영됐다.

2시부터 진행된 개막행사에는 실�크로드재단 최재근 이사장의 개막사, 우리대학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의 환영사, 주한키르기스스탄 두손콜 초토노프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저녁 6시부터는 우리대학 영화학과 천승철 교수가 '중앙아시아 영화의 평가와 과거,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영화인들이 함께 토론에 나서는 등 한 시간 반 동안 진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는 "영상과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주대, 신입 황신모 총장 취임



학교법인 청석학원(이사장 정성봉)은 지난 12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사임을 승인, 후임 총장에 황신모 부총장을 임명했다. 사임한 김윤배 총장은 청석학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우리대학 총장으로 일하게 된 황신모 총장은 “청주대학교를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의 여러 보직과 사회활동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대학의 목표인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 실현을 위하여 밀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대학의 최대 현안인 대학을 안정화시키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혼신의 힘을 쏟아 우리대학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주대 축구부, 조민국 감독-이을용 코치 선임



우리대학은 전 울산현대 조민국 감독과 2002 한일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이을용 선수를 각각 축구부 감독과 코치로 선임했다. 지난 2013년 영입했던 이영진 감독이 올해 다시 대구FC 감독으로 돌아

가자 그 후임으로 지난 시즌 울산현대를 지휘했던 조민국 감독을 선임하며 2015년 시즌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신입 조민국 감독은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고, 1994년 고려대 코치로 발탁되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고려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셔널리그 미포조선, 지난해 울산현대 감독을 맡아왔다. 이을용 코치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부천SK와 FC서울, 터키의 트라브존스포르, 안양LG 등에서 주전으로 꾸준히 선수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다.

청주대, 대학원 장학금 대폭 확대

우리대학이 지난해 2학기 교내장학금을 당초 계획보다 55억원 추가 집행한 데 이어 대학원 장학금도 2015학년도부터 대폭 확대기로 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13억원 수준이던 대학원 장학금을 올해부터 35% 늘어난 18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률은 58%로, 종전 63위에서 2015학년도에는 전국 30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장학금 확대는 성적우수장학, 동문장학, 산업체(직장인)장학, 국가고시장학, 학원교직장학 등 5개 장학금을 신설하고 연구장학과 학생회장학의 지급률 상향 조정과 수혜인원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천구 대학원장은 “금번 장학금 지급률의 확대 개편으로, 대학원 진학을 및 원생확보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교내에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어 연구업적이 올라가며, 국가 연구비의 수주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와의 애로기술해소 등 산학협력 체계도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청주대학교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디자인학과, 美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대상 수상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매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권위의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Spark! Design Award)에서 대상(Spark! Award), 은상(Silver),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IDEA 디자인' '레드닷 디자인' 등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 디자인 대회로



손꼽힌다. 대상을 수상한 이동규(4학년) 학생의 'Slide Wheelchair'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휠체어로 보호자의 부축 없이 옮겨 탈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은상을 수상한 염선아(4학년) 학생의 'Eye Case'는 스마트폰의 내용이 문자와 블루투스 스피커로 출력되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시각장애인들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며, 도우현(4학년) 학생은 산악에서 환자를 구조할 때 경사로 인해 들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들것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용 조끼 'Mountain Rescue Vest'로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청주대, 2015 정시모집 경쟁률 최종 4.13대 1

우리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4.13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우리대학은 지난 12월 24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479명을 모집하는 이번 정시모집에 6,115명이 지원해 4.13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다. 22명을 모집했던 예술대학 연극학과는 648명이 지원, 29.4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화학과가 18.68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항공기 정비인력을 양성하는 항공기계공학과 '가'군이 7.00대 1을,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 '다'군이 5.94대 1을 기록하는 등 항공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설된 '나'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12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하여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효근 학생, 헌혈유공자 금장 수여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4학년 전효근 학생이 지난 11월 13일 헌혈의 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으로부터 헌혈유공자 금장을 수여 받았다. 전효근 학생은 2009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최근까지 총 50회에 걸쳐 헌혈을 해왔으며, 헌혈의 집에서 헌혈자 안내 및 에스코트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매월 13일 헌혈의 날마다 헌혈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

청주대-충북지식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산학협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성일)

은 지난 12월 3일 진흥원에서 협약식을 갖고 문화창의인재 양성과 지역문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무협약을 통해 문화 창의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특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발굴, 학술교류프로그램 운영,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청주대, 여학생 초청 '케이걸즈 데이' 행사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10월 29일 항공운항학과에서 '케이걸즈 데이 (K-Girl's Day)' 행사를 개최했다. 케이걸즈 데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여학생의 산업기술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단위의 행사다. 이날 초청된 40명의 여중생들은 첨단 산업기술의 집합체인 항공기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모형 항공기를 제작하는 체험을 했다. 또한, 무선조종 모형항공기를 직접 조종해보고, PC 비행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항공기 조종 연습과 실제 항공기 탑승과 유사한 모의비행장치(Flight Training Device)를 탑승하며 첨단 항공기의 조종원리를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항공운항학과 조환기 교수는 “항공기의 비행원리를 배우는 동시에 조종방법을 체험하며, 여학생들의 첨단항공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날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미래에 걸출한 항공학 전문가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주대, 행복한 영정사진 콘테스트 개최



우리대학 영화학과 재학생들과 학생회 임원들이 통합청주시 탐대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정사진 콘테스트를 지난 11월 11일 탐대성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11월 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탐대성동 주민들 가운데, 70세 이상 남녀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연기를 전공한 학생들이 10여 분간 얼굴 근육이완훈련을 통해 노인들로부터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이끌어내고, 밝고 환하게 웃는 표정을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한 영정사진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이번 행사의 예산은 청주동서로타리클럽과 청주대학교 사랑봉사단의 성금으로 충당했으며, 이 외에도 청주시와 탐대성동 주민센터, 수암골 영광이네, 새한칼라 등이 후원했다.

Faculty News

교수소식

김경식 교수

제14회 충북도민대상 문화체육부문 수상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가 영화문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충북도민대상 문화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2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언구 충북도의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도민대상 심사위원과 역대 수상자, 주요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식 교수는 지난해 영화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바세코의 아이들>을 제작해 개봉하기도 했다.

조선배 교수

제6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업 혁신대상 심사위원 위촉



호텔경영학과 조선배 교수가 실시한 '2014 제6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업 혁신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11월 10일 용산구에 위치한 헤럴드경제 사옥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헤럴드경제가 미래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우수 중소기업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후원을 받아 올해로 6회째 시행 중이다.

한천구 교수

환경부 장관상 수상



건축공학과 한천구 교수가 지난 11월 7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사)한국건설 순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겸 한국건설 순환자원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환경기술발전기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천구 교수는 그동안 건설자원순환과 관련한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이은석 교수

대체에너지 신소재 시제품 발표회 개최



응용화학학과 이은석 교수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코레스코 콘도에서 신소재 시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 이은석 교수는 "신소재를 이용해 상가용, 사무실용, 농업용 운풍기와 보일러 난로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품 제조와 판매는 국일크리에이티브(주)와 국보에너지(주)가 각각 맡았다.

김찬석 교수

'대학생이 뽑은 베스트 PR 멘토상' 수상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가 한국대학생PR연합회(KUPRA)가 한 해 동안 대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은 PR인에게 수여하는 '대학생이 뽑은 베스트 PR 멘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찬석 교수는 <PR 직업>, <Oh my job> 등의 저술과 강연을 통해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PR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등 교육성과 존경도, 진정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성문기 교수

서울시설공단 주최 <도시의 골목길>전 참여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성문기 교수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한 <도시의 골목길>전에 참여했다. 을지로 아프리콰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도시인들의 힘겨운 일상과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인 골목길 풍경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인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서울과 오사카, 베를린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작가 2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김영환 교수

세종시 도시재생디자인대학 청춘캠퍼스 학장 위촉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디자인대학의 청춘캠퍼스 학장을 맡았다. 지난 1월 10일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3월 7일까지 총 8주 과정의 도시재생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청춘캠퍼스는 조치원을 신흥리, 침산리, 원도심권 등 50여 명 4개 팀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 및 답사, 실습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창신 교수

청주문화총서 6권 <청주의 소리와 가락> 집필 참여



음악교육과 이창신 교수가 청주문화원이 출간한 청주 문화총서 6권 <청주의 소리와 가락>의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모두 360페이지 분량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소작 농업에서 기계화 농업으로 급속히 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소리와 가락을 담고 있다. 이창신 교수는 '청주농악과 동요' 부분을 맡아 집필하였으며, 이번에 출간된 <청주의 소리와 가락>은 청주문화원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김혜경 동문

2014 충북무용대상 예술상 수상



김혜경(무용학과, 94년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9일 충북무용협회가 개최한 '2014 충북무용대상 시상식'에서 예술상을 수상했다. 청주시립무용단 차석단원인 김혜경 동문은 제23회 전국무용제에서 단체 은상과 안무상, 연기상을 차지해 충북무용을 전국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혜경 동문은 현재 청주무용협회 부회장과 벽파춤연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안종태 동문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



안종태(사회복지학과, 91년 졸업) 동문이 지난 11월 19일 오후 충북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도내 3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게 됐다. 안종태 협회장은 91년부터 25년간 사회복지계에 몸담아왔으며,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감사 등을 역임했고, 15년째 충북공무리체육관장을 맡고 있다.

이명식 동문

충북 지역 18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극



이명식(법학과, 06년 졸업) 동문이 충북 지역 18번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등극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이명식 동문은 지난 11월 18일 선프라이에서 열린 기부자만찬인 행복주주총회에서 회원가입식을 갖고, 5년간 매년 2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명식 동문은 현재 (주)충청에스엔지기술사사무소 회장과 대한축량협회 중앙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 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Alumni News

동문소식

김영진 동문

자랑스런 충북기업인상 수상



김영진(상학과, 64년 졸업) 동문이 지난 10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런 충북기업인상'을 수상했다. 김영진 동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유리 생산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일유리(주)의 대표이사로서 정도경영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정웅선 동문

국방부 장성급 인사에서 준장 진급



정웅선(산업대학원, 94년 졸업) 동문이 국방부가 지난 10월 7일 단행한 장성급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정웅선 동문은 1983년 육군 3사관학교 소위로 임관하여, 2000년도에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연결사업에 공병 대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수도방위사령부 공병대장, 공병여단 참모장, 1군사령부, 육군본부 과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준 장성으로 진급했다.

이세민 동문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부임



이세민(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22일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이세민 동문은 경찰대학 졸업 후 1985년 경위로 경찰에 임관, 충북청 정보·수사·경비과장, 청주상당서장과 흥덕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0년에는 충북청 역대 최초의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오기 전까지 경찰수사연수원장을 지냈다.

박상일 동문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박상일(역사학과, 82년 졸업) 동문이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우리대학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일 동문은 지난 12월 18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물관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14명 가운데, 임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박상일 동문은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 발굴작업 당시 발굴조사단원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박세호 동문

신임 청주흥덕경찰서장 취임



박세호(법학과, 88년 졸업) 동문이 지난 12월 22일, 신임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충북 토박이 경찰관 가운데 두 번째로 경무관에 승진한 바 있는 박세호 서장은 우리대학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간부후보생 36기로 임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영동서장, 대전 둔산서장 등을 역임했다.

신화용 동문

포항스틸러스와 재계약 체결



신화용(체육교육과, 07년 졸업) 동문이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4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FA) 선수 자격을 얻은 신화용 선수는 지난 1월 5일 팀과 1년 재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포항 맨으로 뛰기로 결정했다. 2004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포항에서만 뛴 신화용 선수는 총 11시즌을 소화하며 K리그 통산 226경기에 출전, 7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골키퍼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3-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재의 꿈을 읽다!

미래를 연다 세계로 간다

당신의 열정은 미래보다 커다랗기에
당신의 가능성은 세계보다 넓기에
당신의 내일과 청주의 오늘이 만나
가장 뜨거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에서
미래로, 세계로 마음껏
당신의 꿈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인재의 꿈을 읽다 - 청주대학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장학금 360여억 원 지급(2013년)
- 외국인 교수비율 전국 11위(2014 조선일보-QS 대학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과 자매결연)
-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2,300여 명) /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공/진로/대학생활/취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사업 선정(2012~2015)